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

혁명사상 만세!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144 호 [부제 제 25653 호] 주제 106 (2017) 년 5월 24일 (수요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4월의 뜻깊은 날들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4월의 뜻깊은 날들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어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24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게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어왔다.

그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도를 달불고 우리 군대와 인민이 적대세력들의 군사적압

력과 제재책동을 짓부시며 자주, 선군, 사회주의길을

따라 승리적으로 전진해온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뿐내시는 것은 선군으로 존엄높은

주체조선의 밝은 미래를 담보하는 대경사이라고 그들

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조선인민군의 창건은 자주와 독립을 위한 우

리인민의 혁명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

은 획기적인 사건이었으며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하는 새형의 군대, 주체형의 혁명무력의

만행을 알리는 창업한 선언이었다고 지적하였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로씨야, 중국, 쿠바, 네덜란드, 몽골, 수리아, 인도네시아, 일본, 도미니카, 브라질, 멀리아, 멘리우, 스위스, 슬로베니아, 체코, 프랑스, 우크라이나, 민주콩고, 앙골라의 정계, 사회계, 군부, 경제계의

민주콩고, 앙골라의 정계, 사회계, 군부, 경제계의

고위인사들과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통일지지 및 천

선단체 대표들이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어왔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축전으로 되는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리었다.

그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도를

달불고 우리 군대와 인민이 적대세력들의 군사적압

력과 제재책동을 짓부시며 자주, 선군, 사회주의길을

따라 승리적으로 전진해온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뿐내시는 것은 선군으로 존엄높은

주체조선의 밝은 미래를 담보하는 대경사라고 그들

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조선인민군의 창건은 자주와 독립을 위한 우

리인민의 혁명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

은 획기적인 사건이었으며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하는 새형의 군대, 주체형의 혁명무력의

만행을 알리는 창업한 선언이었다고 지적하였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로씨야, 중국, 쿠바, 네덜란드, 브라질, 멀리아, 멘리우, 스위스, 슬로베니아, 체코, 프랑스, 우크라이나,

민주콩고, 앙골라의 정계, 사회계, 군부, 경제계의

민주콩고, 앙골라의 정계, 사회계, 군부, 경제계의

고위인사들과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통일지지 및 천

선단체 대표들이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어왔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축전으로 되는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리었다.

그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도를

달불고 우리 군대와 인민이 적대세력들의 군사적압

력과 제재책동을 짓부시며 자주, 선군, 사회주의길을

따라 승리적으로 전진해온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뿐내시는 것은 선군으로 존엄높은

주체조선의 밝은 미래를 담보하는 대경사라고 그들

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조선인민군의 창건은 자주와 독립을 위한 우

리인민의 혁명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

은 획기적인 사건이었으며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하는 새형의 군대, 주체형의 혁명무력의

만행을 알리는 창업한 선언이었다고 지적하였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로씨야, 중국, 쿠바, 네덜란드, 브라질, 멀리아, 멘리우, 스위스, 슬로베니아, 체코, 프랑스, 우크라이나,

민주콩고, 앙골라의 정계, 사회계, 군부, 경제계의

민주콩고, 앙골라의 정계, 사회계, 군부, 경제계의

고위인사들과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통일지지 및 천

선단체 대표들이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어왔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축전으로 되는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리었다.

그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도를

달불고 우리 군대와 인민이 적대세력들의 군사적압

력과 제재책동을 짓부시며 자주, 선군, 사회주의길을

따라 승리적으로 전진해온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뿐내시는 것은 선군으로 존엄높은

주체조선의 밝은 미래를 담보하는 대경사라고 그들

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조선인민군의 창건은 자주와 독립을 위한 우

리인민의 혁명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

은 획기적인 사건이었으며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하는 새형의 군대, 주체형의 혁명무력의

만행을 알리는 창업한 선언이었다고 지적하였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로씨야, 중국, 쿠바, 네덜란드, 브라질, 멀리아, 멘리우, 스위스, 슬로베니아, 체코, 프랑스, 우크라이나,

민주콩고, 앙골라의 정계, 사회계, 군부, 경제계의

민주콩고, 앙골라의 정계, 사회계, 군부, 경제계의

고위인사들과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통일지지 및 천

선단체 대표들이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어왔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축전으로 되는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리었다.

그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도를

달불고 우리 군대와 인민이 적대세력들의 군사적압

력과 제재책동을 짓부시며 자주, 선군, 사회주의길을

따라 승리적으로 전진해온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뿐내시는 것은 선군으로 존엄높은

주체조선의 밝은 미래를 담보하는 대경사라고 그들

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조선인민군의 창건은 자주와 독립을 위한 우

리인민의 혁명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

은 획기적인 사건이었으며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하는 새형의 군대, 주체형의 혁명무력의

만행을 알리는 창업한 선언이었다고 지적하였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로씨야, 중국, 쿠바, 네덜란드, 브라질, 멀리아, 멘리우, 스위스, 슬로베니아, 체코, 프랑스, 우크라이나,

민주콩고, 앙골라의 정계, 사회계, 군부, 경제계의

민주콩고, 앙골라의 정계, 사회계, 군부, 경제계의

고위인사들과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통일지지 및 천

선단체 대표들이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어왔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축전으로 되는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리었다.

그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도를

달불고 우리 군대와 인민이 적대세력들의 군사적압

력과 제재책동을 짓부시며 자주, 선군, 사회주의길을

따라 승리적으로 전진해온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뿐내시는 것은 선군으로 존엄높은

주체조선의 밝은 미래를 담보하는 대경사라고 그들

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조선인민군의 창건은 자주와 독립을 위한 우

리인민의 혁명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

은 획기적인 사건이었으며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하는 새형의 군대, 주체형의 혁명무력의

만행을 알리는 창업한 선언이었다고 지적하였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로씨야, 중국, 쿠바, 네덜란드, 브라질, 멀리아, 멘리우, 스위스, 슬로베니아, 체코, 프랑스, 우크라이나,

민주콩고, 앙골라의 정계, 사회계, 군부, 경제계의

민주콩고, 앙골라의 정계, 사회계, 군부, 경제계의

고위인사들과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통일지지 및 천

선단체 대표들이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어왔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축전으로 되는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리었다.

그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도를

정 론

사 랑 하 노 라 우 리 의 사 회 주 의

1

려명거리는 그 이름처럼 아름을 모른다. 날에는 밝은 해빛이 눈부시게 뿐이지내려는 이 거리에 밤이면 또 희한 불야성이 펼쳐진다.

자연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이 땅을 불행하고 통에 물어드는 원주민들이 물어오는 점은 장막을 산신이 떠나버리며 행복의 불빛·눈부신 려명거리의 밤, 우리는 지금 이 거리에서 제일 높은 초고층빌딩의 전망에 서 있다.

세상에 유명해진 건물이다. 전설이 한창이면 때에는 고난과 시련을 박차고 나아가는 사회주의 조선의 면모라기상으로 세계를 각진시키고 건축업계가 세계를 정복하는 새로운 유통으로 세운 초고층빌딩인 것으로 하여 유명해졌다.

이제, 우리의 가슴을 그리고 세차게 파고드는 이 거창한 축축물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들여선 이 집의 세대 주는 김일성종합대학의 평범한 연구사이다. 그에게는 안해와 학교에 다니는 맘에와 70살이 넘은 부모님이 계신다. 이 맘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가정이다. 하나 이들이 사는 집은 결코 평범하지 않다.

물론 다른 나라에도 초고층빌딩이 있다. 하지만 그것이 헤로로 살립집으로 리유되고 있는 것은 없다. 그 이유는 국력의 시위라고 일컬어진 건설을 막았던 그들의 끈기 때문이다. 그것도 돈 한푼 남지 않고 무상으로 말이다. 이것이 려명거리를 돌아보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제일 큰 흥미를 자아내고 있다. 얼마전에도 부부방, 차식방, 부모방에 공동침실방이 있고 세광방이 디벨트 넓은 베란다와 부엌, 위생실을 합하여 그 면적이 려워집니다! 그리고 집을 돌아온 외국인은 차기네 나라에서는 이런 집에서 살려면 수백만 USドル을 내야 한다. 그래서 웬만한 부자들은 강한 엄두를 내지 못하는데 조선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돈 한푼 안내고 어떤 집을 쓰고 살다니 정말 믿기 어렵다고 솔직한 심정을 더놓았다.

그러니 70층짜리 초고층빌딩의 높이를 어떻 게 전축적으로만 해야겠다는가. 우리의 사회주의가 만들어온 일련의 행복의 높이이다. 제일 높고 제일 훌륭한 집에서 인민이 사는 나라, 바로 이것이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는 우리의 사회주의, 인민이 우리 정이라며 부르는 사회주의의 대 조국이라는 가슴속 한 각성이 온기를 휘파람하는 려명거리의 밤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주체의 인민관, 인민학의 최고정화인 인민대중제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는 우리식 사회주의는 그 과학성과 진리성으로 하여 반드시 승리하리이다.』

불같은 창가에서 우리의 생각은 깊어만진다.

짐은 인간생활에서 귀중한 것이다. 공기와 물이 없이 살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 점이 없이도 살기가 힘들다. 그래서 짐을 두고 삶의 요람이라고 하지 않던가.

우리에게 있어서 짐은 무엇이란다. 사회주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열화같은 사랑을 담은 한편의 노래를 들으으며 그 노래의 가사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해밀밭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어주신 행복된 집인 사회주의의 대 조국에서 세상에 부림없는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 하신 경애하는 천수님의 그 말씀이 가슴을 친다.

해밀밭은, 행복된집은 점인 우리의 사회주의의 얼마나 깊은 생각을 물리고는 말인가. 고마움에 젖은 인민의 눈빛이란 가슴 한 끝에 꺼질줄 모르는 려명거리의 황홀경에 가슴을 파고든다.

우리 나라에서 새집들이 광운은 처음 보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려명거리의 눈부신 자태는, 집집의 상가에 물리는 행복의 빛을 소리하는 이어야 하며 그처럼 우리의 가슴을 끌어당기는 것인가.

지금이 어떤 때인가. 우리의 사회주의를 암울한 원주민들의 징통이 국도에 이른 때이다. 모든 것이 전대미문이다. 아버진인 제세와 형세도 전대미문이고 힘의 만물을 떠벌이며 벼여달리는 전쟁위협도 사상 최대규모이다.

그처럼 준엄한 시련의 폭풍우속에서 변함 없이 인민을 물어입어 행복의 상상봉에 높이, 더 높이 떠날줄어주는 우리의 사회주의!

얼마나 고마운 운명의 풀인가. 친정 얼마나 귀중한 우리 삶의 요람인가.

인민의 집, 절과 책자에 죄여진 글들이 아니라, 빠는들의 언더울 넘어 오늘에 이르는 수년세월 더 끌어지고 횃불해진 인민의 집, 이 땅 끝에서 끌까지 풀어진 행복의 요람들 이 목에 이어 새겨주는 가슴치는 적정이다.

비눈물의 1·2월을 보내고 맞은 첫해에

창언거리를 가 멀어졌을 때 적들은 선전용에 빠느니, 특전총을 위한것이었느니 하고 떠벌

이었다. 하지만 거기에서 입사한 사람들은 정명한 진언이었느니, 빙의 전선에서 돌아오는 길로 우리 원수님 몸소 찾으시며 새집들이를

축하해주신 김정숙령양반직봉장·장성봉의 가정, 본인은 물론이고 인해와 함께 모두가 교육자인 가정, 남편도 안해도 로동자인 가정… 이들이 바로 창언거리의 주인들이다.

원주민들의 반문화국고립암살집들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일제·제2차 세계대전을 아파하고

위성과학자주역지구, 미파학자거리,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자살집들은 그 이름처럼 모두 정명한 교원들과 과학자, 연구사

들에게 안겨졌다.

이 땅에서 제일 멀지도 험울한 집은 어느집이나 다 근로하는 인민의 집이다.

김정숙령양반직봉장·장성봉에서 이어 또

다시 『로동자호텔』로 일떠선 김정숙령양반직봉장·장성봉에서 사람의 태양이었는 우리 원수님 모시며 변화를 이루는 김정숙령양반직봉장·장성봉에서

인민의 행복이 풍요로운 백화점과 같은 것인가. 험울과 철학을 함께하는 행복의 집은

인민의 행복이 풍요로운 백화점과 같은 것인가. 험울과 철학을 함께하는 행복의 집은

인민의 행복이 풍요로운 백화점과 같은 것인가. 험울과 철학을 함께하는 행복의 집은

인민의 행복이 풍요로운 백화점과 같은 것인가. 험울과 철학을 함께하는 행복의 집은

인민의 행복이 풍요로운 백화점과 같은 것인가. 험울과 철학을 함께하는 행복의 집은

인민의 행복이 풍요로운 백화점과 같은 것인가. 험울과 철학을 함께하는 행복의 집은

인민의 행복이 풍요로운 백화점과 같은 것인가. 험울과 철학을 함께하는 행복의 집은

인민의 행복이 풍요로운 백화점과 같은 것인가. 험울과 철학을 함께하는 행복의 집은

인민의 행복이 풍요로운 백화점과 같은 것인가. 험울과 철학을 함께하는 행복의 집은

인민의 행복이 풍요로운 백화점과 같은 것인가. 험울과 철학을 함께하는 행복의 집은

인민의 행복이 풍요로운 백화점과 같은 것인가. 험울과 철학을 함께하는 행복의 집은

인민의 행복이 풍요로운 백화점과 같은 것인가. 험울과 철학을 함께하는 행복의 집은

인민의 행복이 풍요로운 백화점과 같은 것인가. 험울과 철학을 함께하는 행복의 집은

인민의 행복이 풍요로운 백화점과 같은 것인가. 험울과 철학을 함께하는 행복의 집은

인민의 행복이 풍요로운 백화점과 같은 것인가. 험울과 철학을 함께하는 행복의 집은

인민의 행복이 풍요로운 백화점과 같은 것인가. 험울과 철학을 함께하는 행복의 집은

인민의 행복이 풍요로운 백화점과 같은 것인가. 험울과 철학을 함께하는 행복의 집은

인민의 행복이 풍요로운 백화점과 같은 것인가. 험울과 철학을 함께하는 행복의 집은

인민의 행복이 풍요로운 백화점과 같은 것인가. 험울과 철학을 함께하는 행복의 집은

인민의 행복이 풍요로운 백화점과 같은 것인가. 험울과 철학을 함께하는 행복의 집은

인민의 행복이 풍요로운 백화점과 같은 것인가. 험울과 철학을 함께하는 행복의 집은

인민의 행복이 풍요로운 백화점과 같은 것인가. 험울과 철학을 함께하는 행복의 집은

인민의 행복이 풍요로운 백화점과 같은 것인가. 험울과 철학을 함께하는 행복의 집은

인민의 행복이 풍요로운 백화점과 같은 것인가. 험울과 철학을 함께하는 행복의 집은

인민의 행복이 풍요로운 백화점과 같은 것인가. 험울과 철학을 함께하는 행복의 집은

인민의 행복이 풍요로운 백화점과 같은 것인가. 험울과 철학을 함께하는 행복의 집은

인민의 행복이 풍요로운 백화점과 같은 것인가. 험울과 철학을 함께하는 행복의 집은

인민의 행복이 풍요로운 백화점과 같은 것인가. 험울과 철학을 함께하는 행복의 집은

인민의 행복이 풍요로운 백화점과 같은 것인가. 험울과 철학을 함께하는 행복의 집은

인민의 행복이 풍요로운 백화점과 같은 것인가. 험울과 철학을 함께하는 행복의 집은

인민의 행복이 풍요로운 백화점과 같은 것인가. 험울과 철학을 함께하는 행복의 집은

인민의 행복이 풍요로운 백화점과 같은 것인가. 험울과 철학을 함께하는 행복의 집은

인민의 행복이 풍요로운 백화점과 같은 것인가. 험울과 철학을 함께하는 행복의 집은

인민의 행복이 풍요로운 백화점과 같은 것인가. 험울과 철학을 함께하는 행복의 집은

인민의 행복이 풍요로운 백화점과 같은 것인가. 험울과 철학을 함께하는 행복의 집은

인민의 행복이 풍요로운 백화점과 같은 것인가. 험울과 철학을 함께하는 행복의 집은

인민의 행복이 풍요로운 백화점과 같은 것인가. 험울과 철학을 함께하는 행복의 집은

인민의 행복이 풍요로운 백화점과 같은 것인가. 험울과 철학을 함께하는 행복의 집은

인민의 행복이 풍요로운 백화점과 같은 것인가. 험울과 철학을 함께하는 행복의 집은

인민의 행복이 풍요로운 백화점과 같은 것인가. 험울과 철학을 함께하는 행복의 집은

인민의 행복이 풍요로운 백화점과 같은 것인가. 험울과 철학을 함께하는 행복의 집은

인민의 행복이 풍요로운 백화점과 같은 것인가. 험울과 철학을 함께하는 행복의 집은

인민의 행복이 풍요로운 백화점과 같은 것인가. 험울과 철학을 함께하는 행복의 집은

인민의 행복이 풍요로운 백화점과 같은 것인가. 험울과 철학을 함께하는 행복의 집은

인민의 행복이 풍요로운 백화점과 같은 것인가. 험울과 철학을 함께하는 행복의 집은

인민의 행복이 풍요로운 백화점과 같은 것인가. 험울과 철학을 함께하는 행복의 집은

인민의 행복이 풍요로운 백화점과 같은 것인가. 험울과 철학을 함께하는 행복의 집은

인민의 행복이 풍요로운 백화점과 같은 것인가. 험울과 철학을 함께하는 행복의 집은

인민의 행복이 풍요로운 백화점과 같은 것인가. 험울과 철학을 함께하는 행복의 집은

인민의 행복이 풍요로운 백화점과 같은 것인가. 험울과 철학을 함께하는 행복의 집은

인민의 행복이 풍요로운 백화점과 같은 것인가. 험울과 철학을 함께하는 행복의 집은

인민의 행복이 풍요로운 백화점과 같은 것인가. 험울과 철학을 함께하는 행복의 집은

인민의 행복이 풍요로운 백화점과 같은 것인가. 험울과 철학을 함께하는 행복의 집은

인민의 행복이 풍요로운 백화점과 같은 것인가. 험울과 철학을 함께하는 행복의 집은

인민의 행복이 풍요로운 백화점과 같은 것인가. 험울과 철학을 함께하는 행복의 집은

인민의 행복이 풍요로운 백화점과 같은 것인가. 험울과 철학을 함께하는 행복의 집은

인민의 행복이 풍요로운 백화점과 같은 것인가. 험울과 철학을 함께하는 행복의 집은

인민의 행복이 풍요로운 백화점과 같은 것인가. 험울과 철학을 함께하는 행복의 집은

인민의 행복이 풍요로운 백화점과 같은 것인가. 험울과 철학을 함께하는 행복의 집은

인민의 행복이 풍요로운 백화점과 같은 것인가. 험울과 철학을 함께하는 행복의 집은

인민의 행복이 풍요로운 백화점과 같은 것인가. 험울과 철학을 함께하는 행복의 집은

인민의 행복이 풍요로운 백화점과 같은 것인가. 험울과 철학을 함께하는 행복의 집은

인민의 행복이 풍요로운 백화점과 같은 것인가. 험울과 철학을 함께하는 행복의 집은

인민의 행복이 풍요로운 백화점과 같은 것인가. 험울과 철학을 함께하는 행복의 집은

인민의 행복이 풍요로운 백화점과 같은 것인가. 험울과 철학을 함께하는 행복의 집은

인민의 행복이 풍요로운 백화점과 같은 것인가. 험울과 철학을 함께하는 행복의 집은

인민의 행복이 풍요로운 백화점과 같은 것인가. 험울과 철학을 함께하는 행복의 집은

인민의 행복이 풍요로운 백화점과 같은 것인가. 험울과 철학을 함께하는 행복의 집은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모내기를 최적기에 질적으로 끌내자

농사에 총력을 집중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

지금 사회주의농업마다에서는 모내기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 있다. 올해농사에서 대승전고를 높이 울리려는 전세인민의 영양원인 열을 하여 날마다 모내기성과가 확대되고 있다.

올해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에서 관전적의의를 가지는 해이다. 청만군민의 농사는 예국총정에 의하여 더욱 빛난해의 승리를 꼽고자 하면서 5개년 전략수행의 확고한 전방을 열고 나아가 경제전선을 놓은 단계에 올려서 우수한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농업전선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선이며 사회주의경쟁력 확보에서 힘을 집중하여야 할 주제방향입니다.』

농사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은 자자각강의 위력을 최대로 중대시키며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경제강국건설을 더욱 힘차게 다그치는 세대에 대한 중요성 문제로 나선다.

지금 최후승리를 위하여 폭풍노도는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선에 걸집한 미세와 그 주변세력을 끊어 차단까지 충동화하여 조선반도정세를 전쟁경쟁에 몰아가는 한편 애만적인 계제적 동에 대달리면서 청만군민의 심장속에 깊이 뿐내려온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허물어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

오늘의 현실은 자력자강,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 놓고 농업생산에서 혁명적전환을 이룩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농업전선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선이다. 우리 나라가 이미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선것만 농사를 짓기 위해 식량을 자급자족하기만 하면 적들이 아무리 핵통하더라도 우리 사회주의는 그책없으며 혁명과 진실을 마음먹은데 배심하게 해나갈수 있다. 하기야 우리 당은 올해농사에 모든 땅과 풍을 풍진중, 풍동원함에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면 올해농사에 총력을 집중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선 농촌지원전투에 전당, 전군, 전민이 한 사람같이 헌신하는 것이다.

농업생산을 높이기 위한 둘째

은 농작물의 온갖 핵동으로부터

피해를

막아내는 것이다.

농작물과 농촌을

보호하는 것이다.

농작물과 농촌을

